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경 축 재외동포청 개청	
		배포일자	2023년 6월 18일(일) 총 3매		
담당 부서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 감염병 예방팀장 조인향 ☎440-7851 • 담당자 임민경 ☎440-785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IV 감염이 의심된다면, 무료익명검사 받아보세요!
 - 인천시, 10개 군·구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익명검사 가능 -

인천시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의심자의 조속한 진단·검사와 치료를 권장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22일 중순 웅진군 보건소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무료 익명검사가 재개되면서 인천시 10개 군·구 모두에서 무료 익명검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면 체내의 면역체계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파괴되지만, 항바이러스제의 규칙적인 복용(1일 1회) 등 적절한 치료와 건강관리를 한다면 30년 이상 건강하게 생존 가능하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다.

실제로 1985년에 국내에서 발견된 첫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이 현재까지 건강에 특별한 문제없이 생존하고 있다.

의료진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위험에 노출됐다면, 감염이 의심되는 날부터 약 4주경에 보건소에서 무료 익명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건소에 방문하면 개인정보 노출 없이 무료로 익명검사가 가능해 검사비용, 개인정보 노출 등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검사 시의 우려사항들을 해소 할 수 있으며 확인검사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인천시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조기발견과 감염인에 대한 치료·관리, 감염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무료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 HIV 감염에 의해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

인천시는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무료 익명검사가 2022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했으며 5월 22일 옹진군 보건소의 무료검사가 재개되면서 10개 군·구 모두 무료 익명검사가 가능해졌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치료제의 발달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도 고혈압과 당뇨처럼 꾸준히 치료, 관리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만성질환이 됐다”면서 “감염이 의심된다면, 지체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고했다.

<붙임> 2022년 HIV안심검사 촉진 홍보포스터

에이즈 상담센터

1599-8105

aids114.or.kr

질병관리청

의심 말고 안심검사

에이즈, 증상만으로 알 수 없어
HIV 검사로 확인!

감염 의심일로부터

약
4주

HIV 검사 방법

검사의 정확성을 위해 **감염 의심일로부터 약 4주 경** 선별검사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보건소에서는 **무료 익명 검사**가 가능합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날로부터 약 4주 경 받은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효소면역시험법(EIA)은 감염 의심일로부터 6주 이후, 그 외 **검사법은 12주 이후 재검사를 권고하며, HIV 감염 진단은 선별검사서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에 한해 확인 검사**를 시행합니다

빠른 검사의 필요성

- ✓ 빠른 치료로 건강한 삶 가능
- ✓ 타인에 대한 감염 예방
- ✓ 막연한 불안감 해소

발행일 : 2022.10.20